

환경부 · 국토부 · 산림청 합동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 · 복원계획’ 수립 · 추진

2017년 이후에는 지리산 반달곰이 덕유산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산림청(청장 신원섭)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을 연결 · 복원해 나가기 위한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 · 복원계획’을 수립해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각종 개발사업,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단절되거나 훼손된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생태축에 2017년까지 생태통로 50개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합 단절지역 -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철도 등으로 동서 생태계가 단절된 추풍령 구간, 88고속도로와 지방도로 인해 단절된 지리산~덕유산 구간에 대한 생태통로 연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산~덕유산 구간에 생태통로가 설치될 경우 현재 지리산에만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덕유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반달가슴

곰 복원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전국의 생태축 훼손 · 단절지점은 총 987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한 국토의 파편화, 서식지 단절 등은 넓은 활동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 포유류의 멸종과 연간 신고건수가 57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야생동물 로드킬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호랑이의 생활권은 400~1000km², 반달곰의 경우 40~100km², 담비는 20~60km²에 달하나, 우리나라 국토는 평균적으로 1km마다 하나의 도로가 지나고 있어 해마다 수많은 동물들이 도로를 횡단하다 로드킬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태축 연결 ·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㉔

